

오늘 투표 시작...민주 주자들 총청표심 '영끌' 총력전

2박3일 대전·충청 누빈 이재명
 “우세를 대세로 굳히는 경선 될 것”
 아산 스타트업 방문 이낙연
 “반전 드라마 이제 시작하겠다”
 추미애 천안·아산·대전 돌아
 정세균·김두관 비대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30일 첫 경선지인 대전·충남 경선을 눈앞에 두고 지역 표심 공략에 올인했다. 10월 초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민주당은 31일 대전·충남 경선 온라인 투표 개시를 시작으로 한 달 여 간의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첫 지역 순회경선 결과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동원하는 ‘영끌’ 선거운동에 나선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전날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충청 일대를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재명 후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인 우원식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충청권 경선은 우세를 대세로 굳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선거 바로미터인 충청권 압승을 통해 전체 경선에서도 압승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선대위원장이자 충북이 지역구인 5선 변재일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역 지지가 상당히 높다”며 “바닥 민심 변화를 통해 지방의원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순천·광양시의회 전·현직 의장 14명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순천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업적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자치 분권 강화’를 선언한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에는 정창곤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순천에서 김병권·박문규·박상호·박양섭·이홍재·장승호·정병휘·한창호 전 의장, 여수 강맹선·김영규·서완석·성해석 전 의장, 광양 장명환 전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전현직 금융인 1132명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회견에는 심재오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백국중 우리은행 전 부행장, 박중현 신한은행 전 상무, 백봉문 서울보증보험 전 상무, 박재의 하나금융투자 전

상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역전의 기회를 엿보는 이낙연 후보는 이날까지 나흘째 충청 일정을 이어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스타트업을 방문한 데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잇따라 면담했다. 충남도 기초·광역 의원 및 도민 1만명의 지지 선언 후 지역 기자간담회도 하는 등 바닥 민심을 훑었다. 그는 SNS에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하고, 깨끗한 후보라고 자신하며,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믿는다”며 대선 경쟁력을 강조한 뒤 “최고의 드라마는 반전 드라마로, 그 드라마를 충청에서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남 동부권 광역·기초의원 23명과 직능단체 대표 5명 등 28명이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순천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기에 강한 대통령의 자질을 갖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에는 이용재·임종기·김정희·이광일·정옥남·박진권·김길용·이동현 전남도위원을 비롯해 허유인·박계수·남정옥·오광목·오행숙·장숙희·박노신·박말래·최대원·김성희·조현옥·이형선·김영진·나인수·문양오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이날 대전·충남 일대를 살살이 돌며 당원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천안에 이어 아산, 대전을 거쳐 충청권 지지자 비대면 결의대회에 나선다. 추 후보는 SNS에 “충청 대세가 뒤집어졌다”면서 “추미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4.0시대를 함께 열어갈 충청 대세”라고 적고 필승의지를 다졌다.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비대면으로 충청권 공략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지지층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세종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시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는 오후엔 광주·전남 대학생 3천333인과, 문화·IT(과학기술) 전문가 120명의 지지 선언식에 나서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김 후보도 온라인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공약을 내놓고 충청 민심을 두드렸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제가 이를 소명으로 남았다”면서 국회 및 정부 부처 완전 이전, 거점 복합환승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등 제주 일대를 훑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전·현직 금융인 1132명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어르신·장애우·아동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공공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노인·아동 등 ‘5대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사회의 공동책임이 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5대 돌봄영역 종사자에 대해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 등을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지사는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나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동 돌봄과 관련해 이 지사는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고 초등학교에서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이용 시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 공약으로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인근 어린이집의 육아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실내보육 공간 밀집도 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방문 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환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등을, 장애인 지원정책으로는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내놓았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29.1%·윤석열 27.4%·이낙연 13.6%

KSQI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국민의힘 35.2%·민주당 33.3%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양강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Q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9.1%, 윤 전 총장이 27.4%로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6%였다.

이재명 29.1%, 윤석열 27.4%, 이낙연 13.6%, 이영호 9.4%, 유승민 3.4%, 추미애 3.0%, 안철수 2.6%, 최재형 2.3% 순이었다.

이 지사는 첫 순회경선지인 대전·세종·충청(38.0%)에서 선두였고, 진보층(51.7%)과 민주당 지지층(54.8%)에서 절반을 넘겼다.

범진보권 후보 적합도에선 이재명 지사 31.2%, 이낙연 전 대표 17.5%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올랐고, 이 전 대표는 5.6%포인트 내려 격차는 13.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박용진 의원 5.2%, 정세균 전 총리 4.9%,

심상정 의원 4.6%, 추미애 전 장관 4.2%, 김두관 의원 0.8% 순이었다.

범보수권에선 윤 전 총장 25.9%, 홍준표 의원 21.7%, 유승민 전 의원 12.1%, 안철수 대표 5.3%, 오세훈 서울시장 4.1%, 최재형 전 원장 3.6%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윤 전 총장은 55.5%로 홍 의원(12.6%)과 유 전 의원(5.4%)를 크게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2%, 민주당 33.3%, 열린민주당 7.9%, 국민의당 6.6%, 정의당 3.7%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응답률은 7.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언론중재법 상정’ 대치...분회의 지연

여야는 국회 분회의가 예정된 30일 밤 늦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분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차례에 걸쳐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총을 통해 협상권을 위임

받은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이날 분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요 ‘독소조항’을 철회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안이 분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1. 10.1^(목) - 10.3^(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보성 판소리 성지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고수경연대회

접수기간 2021.8.16. ~ 9.24.18:00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원창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빙자료 제출(9.28.까지)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접수안내 (061)850-5892,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
 ※ 무관중 경연대회, YouTube 실시간 송출

주최 보성군

후원 보성군문화재단 보성교육청 보성문화재단 보성문화재단 보성문화재단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보성군문화재단 보성교육청 보성문화재단 보성문화재단

협력 보성군문화재단 보성교육청 보성문화재단 보성문화재단